산하대지가 어찌하여 생겼는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⑱ 진여

〈원문〉 부루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세간의 일체 근(根)·진(塵)·음(陰)·처(處)·계(界) 등이 다 여래장이라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의 모든 유위의 모습이 생겼으며, 차제로 옮겨 흐르다 마치고 다시 시작하나이까? 또 여래께서 말씀하시되 지(地)·수(水)·화(火)·풍(風)의 본성이 원융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고요히 항상 그대로 있다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지(地)의 성품이 두루하다면 어떻게 물(水)을 용납하며, 물의 성품이 두루하다면 불(火)은 생기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의 성품이 함께 허공에 두루하여 서로 능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땅의 성품(地性)은 장애하고 공의 성품(空性)은 비워 툭 터진 것인데 어떻게 둘이 함께 법계에 두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루나야, 네 말대로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가 생겼는가 하니 너는 듣지 못했느냐? 여래가 설하기를 성각(性覺)은 묘명(妙明)하고 본각(本覺)은 명묘(明妙)하다 하였느니라. 성각은 밝기만 한데 허망하게 밝혀야 할 각(明覺)이 되었느니라."

〈강해〉 〈능엄경〉 4권에는 부루나가 등장하여 부처님께 여쭌다. 지금까지 오온, 육입, 십이처, 십팔계, 칠대가 모두 여래장인 미묘한 진여의 성품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여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번뇌가 없어진 경지인 무루(無漏)에 오른 부루나도 이해가 잘 안 되어 부처님께 여쭈어 본 것이다. "淸淨本然커니 云何忽生 山下大地 諸有爲相 고" 한문 원문의 이 구절은 하나의 공안이 된 말이다. 선사들의 법거량에도 인용되기도 했다. 처음 묻는 스님이 "청정본연커니 운하홀생 산하대지 제유위상고" 하니 질문을 받은 스님도 똑같은 말로 응대했다. 청정본연 하다면 어째서 산하대지의 온갖 차별상이 생기게 되었느냐고 물은 것인데 대답한 스님은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산하대지의 온갖 차별상이 생겼다고 하느냐의 뜻으로 되물은 것이다. 질문한 사람은 청정본연과 산하대지를 둘로 보고 묻고, 대답한 사람은 하나로 보고 반문한 것이다. 이것은 선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부루나의 질문은 각자(覺者)였던 부처가 어째서 불각자(不覺者)인 중생이 되었느냐는 말과 같은 뜻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신론〉이나 도서 등에서 미십중(迷十重), 오십중(悟十重)의 이론을 펴면서 삼세(三細), 육추(六麤)의 구상차제(九相次第)를 말하는 교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능엄경〉의 이 대목도 매우 난해한 곳이라고 예로부터 말해 왔다. 부처님이 부루나에게 해준 말씀에 "성각은 묘명하고 본각은 명묘하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성각(性覺)이 필명(必明)하여 망위명각(妄爲明覺)"이라는 구절은 어느 경전 어떤 구절보다 어려운 구절이라고 인식해 왔다. 이 말을 승의(勝義) 중에 진승의성(眞勝義性)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기도 했지만 역대 많은 〈능엄경〉 주소가들이 갖가지 이견(異見)을 표출한 대목이기도 하다.

"성각(性覺)은 묘명(妙明)하다" 한 것은 산하대지 생긴 근원이 되는 불성, 혹은 법성의 성품 자리를 가리켜 성각이라 하였으나 성각이 결국 본각인 것이다. 그런데 묘명(妙明)과 명묘(明妙)는 서로 글자가 바뀌진 말인데, 묘(妙)는 체(體)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명(明)은 용(用)을 가리키는 말로 본다. 묘명(妙明)이라 말하면 자체에서 작용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명묘(明妙)라 하면 용을 거둬 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게 된다. 말하자면 종체기용(從體起用), 섭용귀체(攝用歸體)의 체용관계를 서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라 한다. 능엄십의 중 4권의 대의를 회상귀원(會相歸源)이라 말해왔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묘명은 적조(寂照)가 되고 명묘는 조적(照寂)이 된다. 부루나는 산하대지의 차별된 모습을 의식하여 이 차별이 왜 나왔느냐고 물은 것이지만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묘하다는 말속의 깊은 뜻은 산하대지가 없는 것인데 왜 산하대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뜻이 숨어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일주천 후 한 물건 내단전에 안착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⑱ 반신소주천의 완성

이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은 기운을 보다 완전하게 순화시키고 반신 소주천을 완성하는 것이다. 반신 소주천의 완성은 황정을 세워주는 것이다. 황정을 내단전이라고 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하단전의 한 물건을 명문으로 빼내는 과정이다. 들숨에 온몸으로 후천기를 받아들여서 명문에 집약시킨다. 이때 한 물건은 하단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과 명문을 함께 울려준다. 하단전의 한 물건이 명문으로 이동한다. 명문에 농구공만 한 열기의 덩어리가 매달린다. 이때의 열기는 한 물건과 선천원기, 후천기가 합쳐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명문의 기운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는 과정이다. 들숨에 온몸으로 후천기를 받아들여서 명문에 저장한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명문의 기운이 중심으로 올라온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영대를 주시하면서 숨을 들이쉰다. 중심의 기운을 갈비뼈를 통해 영대로 보낸다. "옴~~~"하고 숨을 내쉬면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주시한다. 이때 영대와 중심 사이에서 중극 기점을 인식한다. 중극 기점은 영대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 약 5cm 정도 안쪽에 있다. 중극은 4선정의 무념처가 세워지는 자리이다. 4선정의 견성오도가 중극 기점에서 이루어진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중극을 인식해 주면 기운의 순화가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진다. 기운의 거칢이 사라질 때까지 갈비뼈 순화를 반복한다. 기운이 순화되면 하단전으로 내린다. 들숨에 영대를 주시하고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을 울려준다.

하단전에 다시 한 물건이 형성된다. 본성으로 한 물건을 비추면서 중심 기점과 하단전 기점을 함께 주시한다. 한 물건이 밝은 달빛으로 변화되면 명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명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단전의 한 물건을 명문으로 이동시킨다. 들숨에 후천기를 받아들여서 명문에 집약시킨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하단전과 명문을 공명시킨다. 반복하면 하단전의 고요함이 명문까지 확대된다. 하단전과 명문이 하나로 통합된다. 하단전의 한 물건이 명문으로 이동해 간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명문의 한 물건이 영대를 거쳐서 중심으로 이동한다. 갈비뼈 순화를 하다 보면 중심과 영대 사이가 텅 비워진다. 마치 농구공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운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인식된다. 각성을 놓고 보면 일시적 무위각이 돈독한 상태이다. 가슴바탕에서 순화된 한 물건을 하단전으로 내려서 명문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주시한다. 양쪽 갈비뼈를 따라 한 물건을 영대로 보낸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하단전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영대의 한 물건이 중심을 지나 하단전에 이르고, 다시 명문으로 이동한다. 명문에 머물러서 후천기를 집약시킨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반신소주천을 일주천(一周天)한 것이다. 일주천을 이룬 후에 명문의 한 물건을 내단전에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반신 소주천의 완성이다. 하단전과 명문에 의지를 두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쉰다. 그러면서 명문의 한 물건을 하단전으로 이끌어온다. 숨을 내쉬면서, 하단전의 한 물건을 다시 명문으로 밀어낸다. 이때는 '옴' 자 발성을 하지 않고 아랫배의 유격과 호흡의 감각만을 활용한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명문 쪽으로 밀어낸다. 그때,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한 물건을 안착시킨다. 그 자리가 내단전 자리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⑱ 진실되지 못한 망상

선택 없는 마음작용

사물에도 이름들이 존재하지만 사물이 아니어도 이름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과 또 다른 이름 붙여진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이름으로 불리고 나면 그 이름을 그 사물 또는 사물이 아닌 것의 지칭으로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다른 것은 떠올리지 않게 최적화 되어있다. 인간이 사물과 비사물(非事物)에 붙인 이름은 분명한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름으로 사용되고 나면 우리는 서로의 암묵적 합의 아래 그것으로 인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된다. 만약 '자전거' 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똑같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물건을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릴 것이다. 다만 그 떠올린 모양은 각양각색이겠지만, 그 작동원리는 같은 그것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듣고 같은 것을 떠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듣고 그것을 떠올린 사람과 떠올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까? 아마도 그가 그 언어를 모르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알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왜 그것도 모르지?' 라는 의구심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것이다. 왜 우리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알까? 아마도 대상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납득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누구에게나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일들이다. 어떤 때는 전자가 나의 경우가 될 것이고, 어떤 때는 후자가 나의 경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를 내리려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다. "변화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나' 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한, 그 내린 판단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을 망상이라 하고, 그 밖의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을 제일의(第一義)라 말한 것은 아니네."

'나는 있다/나는 없다, 좋은 것/나쁜 것, 착한 일/악한 일, 올바른 일/그릇된 일' 등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한 것은 비교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자(허상)의 바람이지 본질이 나뉜 것은 아니다. 그 본질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허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허상으로 바르게 보는 마음이 오직 스스로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허상으로 보는, 치우치지 않은(편안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기대하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허상이 보는 현실이라는 곳에서는 분명히 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반대로 생각될 것이다. 모두가 허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 두 가지 모두를 허상으로 보는 스스로가 손해를 본다는 망상이 일어나겠지만, 이익과 손해 또한 하나의 덩어리이고 둘 다 허상이지 어느 하나가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망념이 일으키는 것이지, 스스로가 일으키는 마음은 아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한다. '눈뜨고 코 베인다.' 는 속담처럼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주 속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른 마음을 지속하려면 어떤 특별한 마음이나 특별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대오온은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삶에 빠지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고 만다. 삶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Live your dreams with lantern festival

꿈을 담은 연등회

내 꿈이 타오른다



전통문화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전북도민 노래자랑
봉축 법요식
제등행렬
축하공연 (배아현, 비뮤티, 박현빈)

Jeonju

www.liveyourdreams.kr

5. 13.(토) 10시 ▶21시
전라감영 특설무대

(사)불교문화보존회·전라북도 봉축위원회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과 다르면 법당서 누구 망신?....비교시 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증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